"광주지역 분산형·통합형 치수 인프라 구축 절실"

본보 주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하수관거 정비·AI 스마트하수도 구축
양동 복개상가 복원·상가 이전 등 필요
광주 국회의원 8명 "인프라 개선 시급"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기후재난(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분산형·통합형 치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빗물 터널의 일극 해법을 넘는 다핵적·도시통합형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센터장은 ▲구도심 하수관거 정비, AI 스마트 하수도 체계 구축 ▲양동복개상가 복원+상가 이전 대책 수립 ▲지류·소하천 주변 다용도 빗물 저류조 설치 ▲장기 전략으로 용봉천·서방천·동계천 등 복개하천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이제는 단일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주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활력과 연결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여름 극한 호우로 특히 광주의 피해가 심각했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2명이 사망하고 약 320억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기후재난 시대에 필요한 도시 홍수 대응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호우 때 재난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광주천·서방천 일대 수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며 "저류지 확대, 도심 하천 복원, 광주천 빗물 터널 같은 대규모 물관리 인프라 개선은 물론, 상습 침수구역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진숙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오늘 나눈 지혜와 대안이 정부 정책과 법제 개선으로 이어져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광주에 내린 이번 폭우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 앞에서 그 대응은 더욱 신속하고 촘촘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절감케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불투수 면적 확대, 노후 하수도, 복개 하천,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 등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기후 위기와 맞물리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오늘 논의될 제안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준호 의원은 "광주시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침수 피해와 하천 범람으로 도시 방재 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첨단 예·경보 시스템 도입,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토론회는 광주매일신문, 광남일보, 남도일보, KBC 광주방송이 주관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도, 어르신 안전한 여름나기 온힘

전남도는 18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지역 209개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전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27개 사업에 매년 2만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1천300여명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회 프로그램 시작 전 강사가 예방수칙과 건강관리 요령을 안내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도록 돕고 있다.

교육은 ▲물 자주 마시기 ▲무더위 쉼터 이용하기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정오-오후 5시) 시원한 장소 머물기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재정 기자

광주 맥주축제 '비어페스트' 28일 막 오른다

4일간 DJ센터 광장…생맥주 무제한
라이브 무대·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

'2025 비어페스트 광주(Beer Fest Gwangju 2025)'가 오는 28-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18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광주 OB맥주 공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프리미엄 생맥주(스텔라 아르투아, 한맥, 카스, 카스제로)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올해 주제는 '불취무귀(不醉無歸), 무제한 적셔브러(BREW)!'로 실력파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와 에너지 넘치는 DJ공연,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동시 개최되는 감성 플리마켓 '브리즈 마켓'에서는 '무등산 수박 커피'와 같은 지역 대표 식음료 브랜드를 비롯해 조향상품, 목공예소품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커스텀 오브제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감성을 더한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국에서 모인 푸드트럭에서는 맥주와 어울리는 트렌디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스마트 전자제품, 가족식사권, 전시회관람권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도 마련됐다.

올해 축제는 한층 시원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 쿨패치 등 방서용품 제공, 쿨링존 운영 등 무더위 대응 대책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차 입장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등 관람객 편의를 제고한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비어페스트 광주는 맥주와 음악, 문화가 어우러진 낭만과 열정의 향연으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빛내줄 대표 광장축제로 발전시켜 사계절 축제가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어페스타 광주 입장료는 주중·주말 동일 1만7천900원이며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예매 및 현장 결제로 운영된다. 사전예매는 티켓링크에서 '비어페스트광주' 또는 '광주맥주축제'로 검색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7개 사업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전남개발공사는 18일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이날부터 29일까지 2주간 자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임금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가 관리하는 7개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 위반, 무등록 업체 시공,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퇴직공제 미납 등 불법하도급·임금 관련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은 하도급 계약서, 통보서, 내역서·견적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주요 서류를 중심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점검이 1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정기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모든 건설현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